



부러진 KIA 야구

12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2011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4차전 KIA와 SK의 경기 3회말 KIA 김석현의 타격 때 배트가 부러지고 있다. 타선의 긴 침묵 속에 안방에서 2연패를 당하며 KIA의 가을잔치 꿈도 부서졌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무개념 용병술... 작전도 투지도 없었다

KIA, 준PO 4차전 SK에 0-8 대패
1승 이후 24이닝 연속 무득점 '수모'

KIA의 우승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

KIA 타이거즈가 12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준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0-8로 지면서 포스트시즌 고배를 마셨다.

에이스 윤석민이 4일만에 자원등판에 나서며 등 총력전에 나섰다. 타선의 침묵이 계속됐다. 지난 2차전 5회 나왔던 최희섭의

솔로홈런 이후 단 한명의 타자도 홈을 밟지 못하면서 KIA는 24이닝 무득점으로 2011년 준플레이오프를 초라하게 마감했다.

2회말이 승부처였다. 선두타자로 나온 김석현이 내야안타와 상대 유격수 실책으로 2루까지 진투했다. 나지완의 우전안타라 이어지면서 무사 1-3루. 안치홍이 삼진으로 물러난 뒤 차일목이 볼에

맞는 볼로 걸어나가면서 1사 만루가 됐다.

SK 선발 윤희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이현곤의 타구가 2루수 정면으로 향했고 이용규가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득점없이 이닝이 마무리 됐다.

1회를 탈삼진 두 개를 포함 삼자범퇴로 막았던 윤석민이 3회 일찍 무너졌다.

1사에서 정근우에게 중전안타를 맞은 윤석민이 박재상에게 볼넷을 내줬다. 이번 시리즈에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던 최정에게 좌익수 키를 넘기는 2타점 2루타를 허용한 윤석민은 박정권에게 연속 2루타를 내주며 3실점을 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4회를 삼자범퇴 마무리 했던 한기주가 5회 첫 타자 정근우에게 볼넷을 내주며 흔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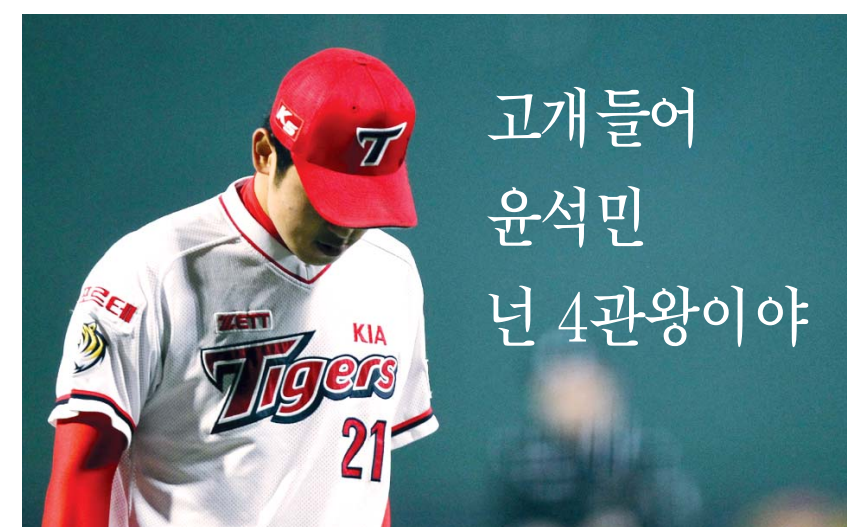
렸다. 박재상과 최정의 연속안타가 이어지는 등 KIA는 5회 2점을 더 내주며 0-5로 끌려갔다.

승기를 뺏긴 KIA는 이렇다할 공격도 제대로 퍼지 못했다.

6회말 1사에서 김석현이 내야안타로 출루한 뒤 나지완의 볼넷으로 1사 1-2루가 됐지만 대타 김원섭이 1루수 파울플라이 아웃으로 물러났다. 차일목의 우전안타가 나왔지만 홈에서 김석현이 아웃되면서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무기력한 경기끝에 KIA는 1승3패의 전적으로 플레이오프 티켓을 이만수 감쪽대행이 이끄는 SK에게 내주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고개 들어
윤석민
년 4관왕이야

에이스 책임감... 4일만에 등판 패전

화려했던 윤석민의 2011년이 아쉬움으로 끝났다.

팀이 포스트시즌 탈락위기에 몰린 12일 KIA 타이거즈 윤석민은 4일만에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윤석민은 지난 8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선발로 나와 완투승을 장식했다.

109개의 공을 던지며 9이닝을 소화했던 윤석민은 4일만에 다시 마운드에 오르며 에이스로서의 책임감을 보였다.

윤석민은 11일 취재진들로부터 남은 포스트시즌의 등판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제 한 경기 한 경기의 싸움이기에 때문에 어떤 계획을 잡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상황이 주어지면 언제나 나갈 준비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마지막 선발 카드였던 서재응이 등판했던 이날 경기가 0-2 영봉패로 끝나자 자원 등판을 하겠다고 나섰다.

윤석민은 "1패는 곧 포스트시즌 탈락

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팀이 어려울 때 역할을 하는 게 내 임무고 책임감이다"고 밝혔다.

에이스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선발로 나선 윤석민은 첫 타자 정근우를 3루수 라인드라이브 타구로 잡아낸 뒤 박재상과 최정을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위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윤석민은 3회 두 개의 2루타 포함 3개의 안타를 허용하며 3회를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를 한기주에게 물려줘야 했다. 그리고 타선의 침묵 속에 팀의 패배로 4차전이 끝나면서 윤석민의 포스트시즌도 함께 끝이 났다.

윤석민은 1차전 마구로 통했던 슬라이더를 구사하느라 엄지·검지·중지에 물집이 생겼다.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후투를 선보인 '4관왕' 윤석민은 2011년 KIA 팬들에게 감동을 선물한 영웅이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맥빠진 KIA 안방 참패...팬 화났다

승부처마다 작전 실패 힘 한번 못쓰고 가을잔치 마감

잇따른 작전 실패가 KIA의 포스트시즌 단락을 갈랐다. 2009년 챔피언 KIA는 '리턴매치'로 치러진 SK와의 준플레이오프에서 1승을 가져오는데 그쳤다. 윤석민의 완투승과 차일목의 만루포로 승리를 거뒀던 1차전을 제외한 2·3·4차전에서 KIA는 2차례 홈을 밟았을 뿐 이렇다할 공격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힘없이 무너졌다.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가져왔던 1차전이 통탄의 경기로 남게 됐다.

윤석민과 김광현 두 거물 투수의 맞대결이 벌어졌던 이날 KIA는 1회부터 버트 작전을 폈다. 경기시작과 함께 이용규가 볼넷으로 걸어나가면서 무사 1루. 김광현의 제구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조병현 감독은 포스트시즌 데뷔 타석에 들어선 김선빈에게 버트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김선빈은 강하게 버트를 댄고 공을 잡은 김광현은 2루를 선택해 주자 이용규를 잡아냈다. 2011 포스트시즌 첫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순간이었다.

작전실패의 부당감 속에 김선빈은 경직된 주루플레이로 이범호의 적시타 때 홈에 들어오다 아웃이 됐다. 3회 무사 1루에서도 박

기남의 버트가 실패가 나오면서 KIA는 어렵게 경기를 풀어갔다.

포스트시즌 시작과 함께 나온 버트실패로 살얼음 승부를 하느라 KIA 타선도 열이 붙었다. 2차전 연장 10회 무사 1루에서는 차일목의 버트실패가 나왔고, 3차전에서도 상대의 실책을 더해 만든 2회 무사 1-2루에서 안치홍의 버트가 병살플레이로 둔갑했다.

주요 승부처에서 반복된 버트작전과 작전 실패는 플레이오프에 도전했던 KIA의 발목을 잡았다.

실상가상 대타 작전도 실패의 연속이었다. SK가 2차전에서 대타 최동수의 동점 홈런으로 승리의 발판을 놓았지만 KIA 대타성적은 볼넷, 병살타, 삼진 그리고 두 개의 플레이아웃이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 ▶ 거치형 본인 네비 매립 전자총 17만원 ⇒ 12만원
- ▶ 만도정품네비 매립(후방카메라+사크안테나+마감재) 57만원 ⇒ 45만원
- ▶ 아이나비 2D 매립+후방카메라+사크안테나+마감재 61만원 ⇒ 49만원
- ▶ 아이나비 3D 매립+후방카메라+사크안테나+마감재 65만원 ⇒ 53만원
- ▶ 트립 컴퓨터 장착 모습
- ▶ 매립장착모델 전자총기능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사크안테나

만도 블랙박스 BN100
▶ 2채널 8기가 35만원 ⇒ 30만원

대한민국 대표 후방카메라 시그널 후방카메라
▶ 후방카메라 15만원 ⇒ 9만원부터

아이나비 클리어 Real HD 블랙박스
▶ 1채널 4기가 19만원 ⇒ 16만원
▶ 2채널 8기가 38만원 ⇒ 33만원
▶ Real HD 1채널 8기가 28만원 ⇒ 22만원
▶ 파워세이프 별도 2만원

▶ 1채널=전방카메라 ▶ 2채널=전방+후방카메라

▶ 사크안테나 10만원 ⇒ 6만원부터

도난경보기 | 이지카 | 스타트버튼

▶ E25500 25만원

▶ E1 7만원

▶ E770B 40만원

▶ E7 37만원

▶ E7-S 43만원 / E7-B 51만원

▶ EZ620 10~14만원

▶ ET 17만원

참고: 추가부품(음선) 차량은 금액이 추가 될수 있음
*차량용 고급장수 2만원 상당 무료증정

한국카렌드 자동차용품 백화점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렌드가 하는 일
 - 루마넌팅, 3M코팅, 모비스코팅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클리닝, 허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안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배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바둑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이지카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카맥세리 일체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객정 끝

임동 자동차거리 중간사거리(20번길)
 임동사거리 | 일신병력 | 허남
 임동오거리 | 신안사거리